

2020년 3월 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3

미 증시,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불구 하락 파월 “금리인하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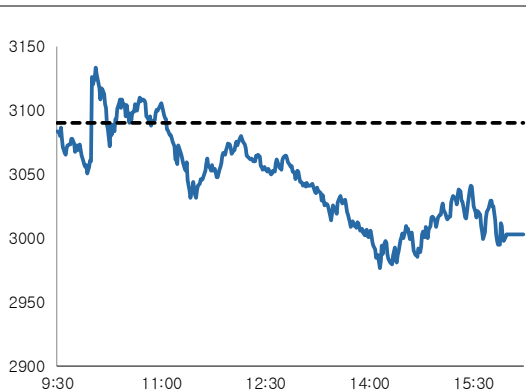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연준 금리인하 및 파월 기자회견

미 증시는 G7 회담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연준이 깜짝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장중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이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자 재차 하락 전환. 특히 파월이 금리 결정 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부담. 미국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 명을 넘어선 점도 영향(다우 -2.94%, 나스닥 -2.99%, S&P500 -2.81%, 러셀 2000 -2.13%)

미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기적인 회의 이전에 긴급 FOMC 를 진행 금리를 50bp 인하한다고 발표. (1.00~1.25%).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연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인가라는 의구심 또한 높아졌다고 보고 있음.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며, 금융시장은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 그런 가운데 필요하면 통화정책 변화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 그렇지만, 통화정책 외에 다른 수단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QE 등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고, 코로나 19 영향은 ‘매우’ 초기 상태로 아직은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경기에 대한 우려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한편, 장 시작전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었는데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경기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도에 그친 점도 부담. 시장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ECB와 BOJ 등은 금리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응을 기대했으나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 특히 ECB 일부 위원이 정책 대응에 반대한다고 발표해 공조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부담. 더불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 명을 넘어섰다는 점도 부정적. 특히 한국과 달리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정부가 검진 사례를 확대하며 이러한 확진자 수가 향후 더욱 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이 부담. 결국 미 증시는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으며, 코로나 19 확진자 수 급증, G7 회담 실망감 등이 유입되며 급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자수동락률(%)	Close	D-1	자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14.15	+0.58	홍콩恒生	26,284.82	-0.03
KOSDAQ		626.82	-0.13	영국	6,718.20	+0.95
DOW		25,917.41	-2.94	독일	11,985.39	+1.08
NASDAQ		8,684.09	-2.99	프랑스	5,393.17	+1.12
S&P 500		3,003.37	-2.81	스페인	8,811.60	+0.80
상하이종합		2,992.90	+0.74	그리스	766.32	+6.38
일본		21,082.73	-1.22	이탈리아	21,748.20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금융주, 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

JP모건(-3.75%), 웰스파고(-4.16%), 씨티그룹(-3.82%), BOA(-5.52%) 등 금융주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0%를 하회하자 급락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를 높였다는 점에서 낙폭이 컸다. 마이크로칩 테크(-6.10%)와 쿼코(-2.16%)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적에 대해 경고를 하자 하락했다. 스카이웍(-4.45%), 아나로그디바이스(-3.66%), 인텔(-3.83%), 브로드컴(-3.76%), 텍사스인스트루먼트(-4.34%), 마이크론(-5.11%) 등 여타 반도체 업종이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1% 급락했다.

애플(-3.23%)은 공급망 훼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하락했다. MS(-4.79%), 알파벳(-3.51%), 페이스북(-5.56%), 아마존(-2.30%) 등 여타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월마트(-2.56%), 타겟(-3.01%) 등 소매유통업체, 원리조트(-5.10%), 라스베가스 샌즈(-4.05%) 같은 리조트, 카지노, 매리어트(-7.06%) 같은 호텔, 부킹닷컴(-2.66%) 같은 여행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4.85%) 등 항공주, 엑손모빌(-4.79%), 셰브론(-2.28%) 등 에너지 업종은 부진했다. 유나이티드헬스(-4.29%) 등 헬스케어 업종은 버니샌더스 후보의 약진이 이어지자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2%	대형 가치주 ETF(IVE)	-2.84%
에너지섹터 ETF(OIH)	-4.47%	중형 가치주 ETF(IWS)	-2.11%
소매업체 ETF(XRT)	-2.27%	소형 가치주 ETF(IWN)	-2.10%
금융섹터 ETF(XLF)	-3.76%	대형 성장주 ETF(VUG)	-2.86%
기술섹터 ETF(XLK)	-3.80%	중형 성장주 ETF(IWP)	-2.4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5%	소형 성장주 ETF(IWO)	-2.01%
인터넷업체 ETF(FDN)	-2.80%	배당주 ETF(DVY)	-1.67%
리츠업체 ETF(XLRE)	-0.0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9%
주택건설업체 ETF(XHB)	-0.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5%
바이오섹터 ETF(IBB)	-2.67%	미국 국채 ETF(IEF)	+1.16%
헬스케어 ETF(XLV)	-2.49%	하이일드 ETF(JNK)	-0.40%
곡물 ETF(DBA)	+0.65%	물가연동채 ETF(TIP)	+1.01%
반도체 ETF(SMH)	-3.28%	Long/short ETF(BTAL)	+1.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42.64	-3.12%	-7.37%	-14.34%
소재	341.78	-0.75%	-2.97%	-7.56%
산업재	619.97	-2.43%	-5.44%	-9.34%
경기소비재	925.78	-2.32%	-4.43%	-7.23%
필수소비재	619.62	-1.31%	-2.69%	-4.41%
헬스케어	1,098.88	-2.54%	-2.74%	-5.65%
금융	444.92	-3.73%	-6.57%	-11.03%
IT	1,575.48	-3.79%	-2.58%	-7.11%
커뮤니케이션	171.49	-3.33%	-3.90%	-7.38%
유틸리티	328.38	-1.16%	-4.52%	-6.50%
부동산	238.96	-0.10%	-4.28%	-2.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은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8%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02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1.90pt 하락한 270.4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5.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했다. 특히 연준이 정기적인 FOMC 를 2 주 앞두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점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주요 질병사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는 점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급감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인하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발표한 점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애플, MS, NVIDIA, 아나로그디바이스, NXP 테크에 이어 마이크로칩 테크(-6.10%) 또한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공급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실적 부진 경고를 했다. 애플 부품주 중 하나인 퀴보(-2.13%)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스마트폰 공급망 및 고객의 수요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점도 관련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 ECB 의 TLTRO 등 정책 대응, WB, IMF 의 긴급 대응 시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은 경기 둔화 우려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수혜로 미 증시 대비 조정폭은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하회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 상승으로 발표돼 예상치(yoy +1.4%)를 하회했다.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다.

유로존 실업률은 7.4%로 지난달과 변하지 않았다.

미국 2 월 체인점 및 할인점 매장 판매량은 지난주 발표(yoy +5.4%) 보다 증가한 전년 대비 5.9% 증가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한때 사상 첫 1.0% 하회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요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추가적인 공급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에 반응을 보이며 강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유입된 가운데 TLTRO 기대가 높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자 10년물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1.0%를 하회했다. 이번 금리인하에 이어 4월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60%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낙폭을 축소하자 국채금리 또한 일부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한편, 매파 성향의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 이라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3% 넘게 급등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 및 달러 약세가 충돌하며 혼조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7.18	+0.92	-5.45	Dollar Index	97.133	-0.23	-1.85
브렌트유	51.86	-0.08	-4.42	EUR/USD	1.1179	+0.40	+2.73
금	1,644.40	+3.11	-0.34	USD/JPY	107.12	-1.12	-2.79
은	17.188	+2.68	-5.91	GBP/USD	1.2813	+0.46	-1.48
알루미늄	1,722.00	+0.29	+1.12	USD/CHF	0.9557	-0.38	-2.09
전기동	5,666.50	-0.59	-0.33	AUD/USD	0.6595	+0.89	-0.14
아연	1,975.50	-2.35	-2.64	USD/CAD	1.3382	+0.41	+0.78
옥수수	381.25	+1.53	+1.26	USD/BRL	4.5077	+0.72	+2.72
밀	527.25	+0.76	-1.82	USD/CNH	6.9485	-0.21	-1.10
대두	903.50	+0.28	+1.72	USD/KRW	1195.20	+0.13	-1.25
커피	122.20	+5.71	+12.63	USD/KRW NDF1M	1186.35	-0.25	-2.4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94	-16.91	-35.80	스페인	0.185	-9.80	-2.60
한국	1.380	+0.50	-6.00	포르투갈	0.256	-9.60	+2.30
일본	-0.107	+1.00	-0.30	그리스	1.211	-14.10	+16.30
독일	-0.625	-0.10	-11.30	이탈리아	0.986	-14.80	0.00